홍준표·이철우 정치놀음 막내린 대구경북행정통합····

관련기사 2·3면



잘못 끼워진 첫 단추 소리 요란한 TK통합 100일천하 끝내려고 550만 시도민 우롱… 상처·갈등만 남겼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이 100일 천하로 막내렸다.

홍준표 대구시장 한반도 제2도시, 이철우 경북지사 대한민국의 새 판을 짜는 출발점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내걸었지만 결과는 사실상 백지화다.

1995년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광역자치단체 간 첫 통합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결국 대구시와 경북도간 행정통합 논의는 모래성이었다.

시군 권한과 청사라는 덫에 걸려 치유할 수없는 상처만 남긴채 파국을 맞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7일 대구·경북 통합논의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대구경북통합號 출항 100일만에 침몰…

홍준표 대구시장 무산 선언 "시·도민께 죄송"…고개숙여 불과 석달여 만에 분열·갈등 조장·응어리 남기고 '물거품' 이철우 경북지사, "행정통합 끈 놓지 않겠다" 입장 밝혀



한반도 제2도시라는 깃발을 걸고 출항한 대 구경북통합號가침몰했다.

대구경북통합號출항 100일만이다.

망망대해를 떠다니다 시군 권한과 청사문제 라는 거대한 암초를 만나 차가운 바닷속으로 가라앉았다.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 소멸에 대응, 한반도제 2의 메가시티를 만들겠다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 불과 석달 여 만에 분열과 갈등만 조장한채 물거품이 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 난 5월 통합을 제안하고 이 지사가 맞장구를 치 면서 탄력이 붙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두 지역의 조속한 행정통합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대구시가 되면 연방정부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그야말로 급물살을 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 도권 일극체제에 대응,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 고,정체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재도약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행정통합은 완전자치를 위해 중앙권한 가져오는게 가장 큰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구경북이 다합의되고 있는데 청사 문제 때문 에 행정통합이 안되면 후손들에게 죄 짓는 것 이다.

청사 때문에 행정통합이 장기적 미제과제로 미뤄져서는 안된다는점을 강조했다.

하지만 홍 시장은 경북도가 28일까지(대구시가 제시한) 최종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으면 통합은 현실적으로 장기 과제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경북도가 28일까지 합의할 경우 오는 30일 (합의서에) 서명을 하고 무산시에는 장기과 제로전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반면 이철우 경북지사는 시군의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말까지 결론 내자고 대구시에 제안 해되

이 지사는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통합의 원 칙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받아와서 광역정부와 대구·경북 행정 통합 시 경제 규모 1 인구 2 면적 3 GRDP 4 지방세입



*GRDP는 지역내총생산. 2022년 기준, 인구는 올 2월 기준. 자료=통계청

기초정부 모두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시군이 특색 있게 성장해야 다양성이 확보되고 진정한 지방시대로 간다"며 "시군 권한을 줄이는 것은 옳지 않다"고주장했다.

◉홍준표통합무산선언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7일 대구경북통합 논의 무산을 공식 선언했다.

홍시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오늘 경북도의회가 대구시장 성토장이 된 것은 유감이다. 최종 시한이 내일(28일)까지이지만 도의회 동의는 어려울 것 같다"고 적었다. 홍시 장은 "그간 통합을 지지해 주신 시·도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대구경북행정통합 협의는 그야말로 '한치 양 보없는 대치'를 벌여왔다.

홍시장은 "더이상 통합논의는 장기과제로돌리고 우리는 대구혁신 100에만 집중하는 게 대구경북의 갈등을 수습하는 방안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간 대구·경북 통합을 지지해주신 시·도민들에게 송구스럽고 죄송스럽다"고 안타 까움을 표했다.

홍시장은 "지난 3년간 끌어오던 지방행정 개 혁이 생각이 서로 달라 무산된 것은 참 아쉽다" 고도했다.

앞서 홍 시장은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오는 28일까지 대구시가 제시한 통합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구했고, 이 지사는 현재 쟁점인 시·군 권한과 청사 문제를 9월 말까지 결 론 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이날 열린 경북도의회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홍 시장에 대한 비 판성 발언이 나오고 통합 여부에 대한 주민투표 를 실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라 나오면서 홍 시장이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결단을 내린 것으로전해졌다.

대구시는 지난 14일 통합자치단체를 '대구경 북특별시'로 명명한 자체 통합특별법안을 공개 했다. 양측이 통합안의 90% 이상을 합의했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 다. '경북시·군의 권한 축소'와 '경북 권역 내 청 사' 문제다.

양 지역의 행정통합은 2019년에도 추진됐다 가 공감대 형성 부족 등으로 2021년 중단된 바 있다.

■이철우 "여전히 중단없이 진행"

이철우 경북지사는 홍 시장의 발언에도 행정 통합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 지사 명의의 입장문을 내 "행정통합은 다양한 분야가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로, 진행 과정에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난관이 있더라도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저출생 등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국가 대개조사업이다.

수도권 일극체제를 벗어나 다극체제를 만들 어 지방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이 앞장서서 행정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행정통합은 다양한 분야가 서로 얽혀 있는 매우 복잡한 문제로 진행 과정에 난관이 있 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합의와 조정이 중 요하다.

지금까지 제기돼온 문제보다 더 큰 난관이 있 을 수 있다

하지만서로 협의하며 조정하는 가운데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세대를 위해 대구·경북 통합의 길을 열어가지고 했다.

그동안 경북도는 민간과 행정이 함께하는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행정통합의 추진과 실 행을 위해 기존 실무추진단을 민관통합 협력 추 진체계로 확대 개편한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 단'을 구성했다.

경북도 행정통합 민관합동추진단은 행정통 합추진단, 통합자문위원회, 통합연구지원단의 3대 조직구성을 바탕으로 통합 관련 업무와 시 도민 공감대 형성 등 활동을 맡았다.

이철우지사는 "행정통합은 시도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국가지방행정체제의 근본 틀을 바꾸는 크고 어려운 역사적 과제다. 도민 한분 의목소리라도 더 듣고 통합의 내용과 통합 이후 의 새로운 발전구상을 면밀히 준비하고 추진겠 다"고 강조했다.

◉이형식 도의원, 현재의 행정통합 반대

경북도의회 이춘우 박규탁,김대진 대변인은 28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있어 쟁점들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거쳐 도민 들이 원하는 합리적인 통합방안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경북도의회 이춘우,박규탁, 김대진 대변 인은 입장문을 통해 "경북도의회 통합 논의 시 작 후 집행부의 의견과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오고 있다"며 "한결같이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북도의회는 홍준표 시장이 최근 갑작스 러운 기자간담회와 페이스북 등 SNS 정치로 일 방적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발표로 오히려 시·도민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 했다.

경북도의회는 통합청사와 관할구역 문제,기 초지자체 자치권 약화,주민투표 등이 현재 대구 와 경북이 합의되지 않은 부분인데 이 역시 민 주적절차를 통해 해결하자는 입장이다.

경북도의회 대변인은 "행정통합이라는 큰 아 젠더를 광역단체장 한명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폐기하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인 '절차와 협치'를 무시하는 것이다"며"행정통합의 과정과 진행은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27일 열린 제349회 경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일수 도의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시도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은 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순식간에 후딱 해치워 버릴 사안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형식 도의원도 한마디 했다.

그는 "수도권 일극체제를 막고 인구소멸에 직면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대승적 차원의 행정통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도민과 도의회의 의견수렴 없이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짧은 시간 안에 속도전 하듯 추진하고있는 현재의 행정통합에는 반대"라며 입장을 밝혔다.

연일 대구시가 경북도와 합의되지 않은 청사, 시군 자치권 축소, 주민투표 및 공론화위원회, 28일로 못 박은 합의안 통합 시점 등을 일방적 으로 보도하는 등 경북과 대구의 갈등이 증폭되 고 있는 상황에서 이철우 도지사의 명확한 입장 과 대응책을 촉구했다.

이 도의원은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통합의정 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주민투표를 실 시, 도민의 의견이 통합과정에 주축이 될 수 있 도록 해야하고, 행정통합이후 발생될 갈등 요소 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통합이 진행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 도의원은 경북도가 제시한 특별법안 272개 조문을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은 약 80건으로 통합 단체장 권한이 커지는 반면, 지방의회 관 련조문은 단 3개뿐"이라며, 지방의회 권한축소 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의회와 집행부 간 상호 견제기능이 균형을 이루려면 특별법안에 △의회의 자율적 예산안 편성권 △의회사무기구 정원 조직권에 대한 독립적 권한 △실질적인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명시하는 등 조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와 집행부간 건설적인 견제와 균형의 원 리를 실현할 수 있는 감사기능의 의회배치가 필 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법률안에 특별시장 소속으로 되어 있는 감사위원회의 의회 이관을 촉구했다. 김성용기자



대구경북행정통합 무산 홍준표 시장에게만 있나?

대구경북통합 號 출항 침몰 야권 시민단체 홍준표 겨냥 모든 책임 홍시장에게 있다 일제히 도마위 난도질 가해 똘똘뭉쳐 마치 '토끼몰이' 대구경북 '분열의 땅'되나(?)

대구경북행정동합이 사실상 백지화되자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난도질을 하고있다.

대구경북통합號출항 100일만에 침몰하자 모든 책임이 홍시 장에게 있다는 듯이 돌팔매질을 하고 있다.

정치권과시민단체가똘똘뭉쳐미치'토끼몰이'하고있는형국이다.

홍준표 대구시장 측근들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 무산이 왜홍시장에게만있느냐"고목청을 한껏 높였다.

어쨌든행정통합이침몰하면서분열과갈등만조장한꼴이됐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의논의무산과관련해이철우경북도지사 가"미래세대를위해대구경북통합의길을열어야한다"고입장 을밝힌데대해홍준표대구시장이 28일 "생각이 있다면 경북도 의회부터설득하라"고압박했다.

홍시장은이날자신의 페이스북계정에 올린글을통해 "우리 (대구시)는지속적인 소통으로 대구시의회와 이견이 없어서시 의회 동의가어렵지 않지만,경북도의회는집행부와 마찰이심해 도저히 도의회 동의가어렵다고 판단된다"고지적했다.

그는 또 "대구시는 시의회 동의로 주민투표를 갈음하는데, 경 북은 주민투표로 통합을 추진한다면 도민 갈등만 더 부추길 위 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시장은 "일부에서는졸속추진운운하지만TK(대구·경북) 통합은지난3년동안논의돼왔던것"이라며 "TK 통합지방행정 개혁논의가이렇게무산된것에이쉬움이크다"고했다.

대구시가지난 26일 대구경북행정통합이 절실하다며 경북도에 특별조치법안 쟁점에 대한 최종 합의안을 제시했지만 27일 경북도의회에서 홍시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온데 대한 대응이었다.

■경북도의회갈등혼란초래

경북도의회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행정통합 무산을 선언하자 일제히 성토했다.

행정통합무산에 대한 원인을 경북도의회와 경북도 집행부의 마찰탓으로 돌리는 홍준표시장의 주장에 대한 입장 표명이다.

경북도의회는 28일 "통합논의 시작 후 집행부의 의견과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청취해오고 있다. 한결같이 도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있는 상황이라" 고했다.

도의회는홍준표시장의 갑작스러운 기자간담회와 페이스북 정치 등 일방적인 무산 발표로 시도민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주장했다.

도의회는 행정통합에 대해 시고민의 찬반은 있을 수 있지만, 합의라는 전제가 중요한 행정통합이라는 큰 아젠더가 한 명의 광역단체장의 독단으로 이뤄지고 폐기하는 대구시의 이러한행 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도의회는민주주의 기본인 '절차와 협치'라는 큰 틀에서 행정 통합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장조했다.

◉임미애, 홍준표 시장 책임

더불어민주당임미애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홍준표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27일 개관을 앞둔 대구간송미술관을 찾아 개관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대구간송미술관은 새달 3일 정식 개관과 함께 국보·보물특별전 '여세동보(與世同寶,세상 함께 보배삼아)'를 개최한다.

대구시장이대구·경북행정통합무산을선언했다.그리고 그책임을 경북에 돌렸다.예상했던 바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 모습"이라고 맹폭을 가했다.

임의원은 그동안 홍준표식 문지마행정통합이 잘못됐다는지 적은 수없이 있었다. 행정통합은 단순히 법으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통합자치단체의 위상을 보여줄 청사의 위치 문제나 각 시군의 권한 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 변화와 직결된 사안이 다"고했다.

그는심도깊은숙의가필요한일이다.대구시가제안한안을받을래말래로결정할문제가아니며,속도만낸다고될일이아니라는건홍준표시장을제외한모두가알고있었다"고말했다.

임의원은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신의 대권 행보만을 위해 막무가내 추진하던 홍준표식 행정통합 무산은 당연한결과 다라고 다당해다.

그는 민주주의에 숙달되지 않은 미숙함 탓에 불필요한 지역갈 등과 행정력 낭비만 키웠다. 이에 대한 시괴가 있어야 할 테지만 기대조차되지 않는다. 이번 통합 무산을 만회하기 위해 또 다른 무리수를 두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충고했다.

■민주당,아니면말고의홍준표행정

더불어민주당도거들고나섰다.

이날더 민주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늘이런 식이다. 아니면 말고 행정이 몇 번째인지 모르겠다. 홍시장 겨냥 비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논평에서 대구시당은 민주당 임미애 의원실과 함께 행정의 효율성과 자치분권의 조화,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주민의견 수렴등의 통합에 대한절치와 대안까지 마련했다.

분명하게 말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두 달짜리 이벤트인 가? 이게 하다가 그만해도 되는 것인지, 싫으면 시집가 상황인지, 감정 싸움하다가 '아몰랑' 해도 되는 상황인지 황당하다. 급하게

박정희 표지석을 밀어붙이다가체면 구긴게 아닌가?

공수통합추진에대통령까지불러서지지발언하게하고행안 부장관이랑웃으면서시진찍고두단체장이할수있는이벤트 는다하지않았는가?마치통합하면대구경북이한반도중심이 라고까지대구시내전역에현수막으로도배를했다.

두달재미본것인데다음이더불안하다.

분명 홍시장은이번 것을 만회하려고 꼼수를 동원할 것이다. 이 기회에 홍시장에게 묻는다. 성서공단 태양광 시업, 국가로 봇테스트필드, 대구 공공기관 이전, 군위군 원전, 취수원 이전 등을 포함, 다시 만회 전시 행정 쇼를 펼치는 것을 강력하게 경 고하다

대구시당은홍시장의만회전시행정쇼를기관지언론과합작 해서또대구시민의 눈과귀를가릴것인지에 대해 두 눈부릅뜨 고감시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혁신당, "대권정치놀음그만"

홍준표대구시장이대구·경북행정통합논의무산을선언하자 아당은 '홍시장의 말바꾸기와이니면 말고식의행정'이라며 강 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대구시당도이날논평에서 "홍준표대구시장의말 바꾸기와이니면 말고식 행정이 도를 넘고 있다"며 "홍시장은 2 년전 행정통합을 말 한마디로 막아섰다가 입장을 바꾸어 밀어 붙이겠다고 하더니, 2달만에 본인이 의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다시 그만두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언행에는 신중함과 책임감이 있어야한다"며 "본인이 SNS에 올리면 끝인가. 단체장으로서 대구시민에게 공식적으로 먼저 사과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홍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에 대한 책임감도 없고, 무거움도전혀 모르는 것 같다"며 "대권정치놀음 그만하고 진정 시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시민의 목소리를 들어라"고했다.

■책임은전적으로홍준표시장

지방분권운동본부대구경북본부도대구시와경북도의행정 통합합의무산에대해 "시·도민들과의소통부재가 낳은결과"라 면서두지자체장을 비판했다.

이창용지방분권운동본부대구경북본부상임대표는 "홍시 장은처음부터대구시민들과소통해서논의가진행된것도아니 고대구시차원에서만제안했다"며 "행정통합논의가무신된것 은안타깝다"고평가했다.

이 대표는 "지금 당면한지역소멸 문제라든지 청년 유출, 대학 위기 등에 따른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면적 분권자체 제도가 도입돼야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통합 논의는 중단이 아니라 꾸준하고 지속적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계의시민들과시도의회,시·군·구의집행부와입법부가다같이참여해지역사회의문제점을논의하고우리사회의에너지를모을수있는방법을찾아야한다"며 "지자체는제안할수는있지만일정을정해서하는건하지말자는것과같다.홍시장은무산을선언할게 아니라좀더논의하고지역사회의중지를모아야한다"고충고했다.

■홍준표막대로행정' 규탄

같은날대구참여연대는시도민농락하는'홍준표맘대로행정' 을규탄하는성명을발표했다.

시민단체는 '홍준표 맘대로' 추진된 대구경북행정통합 무산은 예견된 일이라고 못박았다.

이들은 "홍시장이시·도민을 우롱하고, 갈등을 야기하고, 행정력을 낭비했다. 공식 기자회견이나 보도자료가 아니라 페이스북글을 통해 무산을 선언하고 유감을 표명한 것도 무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즉각시·도민에게 공식적으로시과하고,시의회도 홍시장의책임을물어야한다"고주장했다.

성명서에따르면홍준표시장이지난27일페이스북을통해경 북도의회가대구시장성토장이된것에유감을표하며,대구경북 행정통합의무산을선언했다.

여러청사의 위치와관할 구역, 광역의회의 위치, 기초지자체 의권한과역할, 주민투표의실시 여부 등여러 사안에 대한 시, 도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홍시장이 설정한 '8월 28일까지합의'라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뻔히예상된일이다.작은읍면동의통합도주민의견수렴과숙의공론화,심층적인연구와대안미련,법제도의재개정등오랜시간에 걸친합리적 절차와 통합적 과정이 필요하다.대도시간의통합이야말할나위가없다.

그러나홍시장은시민은물론시의회의논의도없이갑자기제 안했고,이철우지사도마찬가지로회답했다.

시·도민의의견수렴은고시하고시·도의회의논의도없이갑자 기추진된일이순풍에돛단듯이순항,2년만에완결될것이라고 예상했다면그자체가오산이었다.

때문에 관"치시대의 권위주의, 독단으로 시도민 농락한 홍준 표시장을 규탄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대구경북행정통합문제는찬반을논의할수있는문제라고했다. 시민단체는 "행정통합추진여부도,내용도,절차도,완결시점 도모두시·도민의의견수렴도없이두단체장(홍준표이철위) 맘 대로결정,추진됐다.홍준표시장은8월 28일까지라는합의시한 도자기맘대로정해놓고,지켜지지않으니상대를 탓하며일방 적으로 무산을 선언했다.시·도민을 우민으로 여기는 제왕적사 고가아니라면있을 수 없는행타라"고맹폭을 가했다.

시민단체는 "홍시장은 선거라는 절차만 거쳤을 뿐 관치시대의 향수,권위주의적 사고에 빠져 있음을 선명하게 보여줬다.홍 준표시장의 시대착오적 독단은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이르렀다"라는 뺴있는 말을 했다. 김성용 기자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안한 슬로건입니다.

대구광역일보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4**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황오동에 백미 기부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임, 봉사활동 총괄 이규 섭세무사는 26일 황오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해 백미 10kg 30포(100만 원 상당)를 기부했다 고 밝혔다. 아·사·모는 명절과 연말연시 등 수시 로소외된이웃들에게 쌀과 생필품 등 후원물품을 전달하며, 사랑의 연탄나눔 행사, 밥퍼 봉사활동, 환경정비 활동 등을 통해 18년째 경주의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해 온 단체다.

특히, 봉사활동을 총괄하고 있는 이규섭 세무 사는 2024년 제58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무료 세무상담, 납세자 권익보호, 성실납세 조성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표창'을 수상, 지역 내본보기가되고 있다.

국가지질공원, 유네스코 지정 위해 中츠저우시와 협력

중국 츠저우 대표단 주상절리 찾아 "세계지질공원 지정…행정력 집중" 내년 상반기 유네스코 승인 남겨

'경주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 공원 지정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경주시가 중국 츠저우시와 협력에 나섰다.

경주시는 중국 츠저우시 공무원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경주를 방문해 양 도시 간 지질공원 교류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고 28일 밝혔다.

츠저우시는 중국 안후이(安徽)성 남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중국 불교의 4대 명산 중 하나 인 구화산(九華山)이 있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난 27일 경주를 찾은 츠저우시 대표단은 동남산 상사바위, 탑곡 마애조상군, 불곡 마 애불, 골굴암, 문무대왕릉, 양남 주상절리 등 을 둘러본 후 경주 국가지질공원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츠저우시 대표단은 구화산 세계지질 공원(2009년 지정)을 소개하고, 경주시는 경 북동해안국가 지질공원의 현황을 소개하며 양 도시 간 지질공원의 상생협력을 위한 기틀 을 마련하는 교류의 장을 만들었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의 지질유산을 공유하

고 협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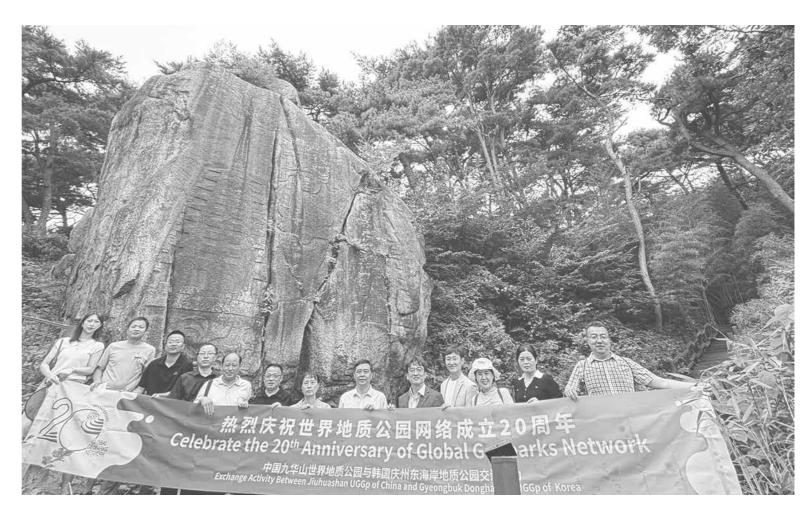
'경주 국가지질공원'은 경주 남산 화강암, 골굴암, 문무대왕릉, 양남 주상절리 등 4곳이 지난 2017년 환경부 인증을 받았으며, 동해 안을 따라 울진, 영덕, 포항, 경주 4개 시·군의 지질명소 29곳이 '경북 동해안국가지질공원' 에 속해 있다.

이 공원의 총면적은 2629.66km²로 국내 최 대 규모다.

앞서 경북도와 4개 시·군은 지난해 11월 신 청서를 제출했고, 올해 4월 서면심사, 지난달 현장 실사를 마쳤으며, 다음달 예비결과 발 표를 거쳐 내년 상반기 유네스코 정기 총회에 최종 승인을 남겨 두고 있다.

궁원성 구화산 풍경구 관리위원회 당공위 서기는 "세계지질공원 지정으로 경주를 포함 한 경북 동해안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자 연유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주시 송호준 부시장은 "경주의 국가지질 공원은 지질학적으로 뛰어난 명소와 문화유 산이 공존하는 지질 유산의 보고"라며, "자 매 도시인 츠저우시 대표단과 경북동해안국 가지질공원의 지속적인 상호 방문 등 교류를 통해 향후 문화교류의 장 마련을 기대한다" 고 말했다.



청년유입 위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사업' 나선다

농식품부 주관 사업 추진 단독주택 30호 미만 조성

경주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청년농촌보 금자리조성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이 사업은 읍·면지역 귀농·귀촌인, 주민 중 40세 미만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거 부담을 완화해 농촌지역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

그니. 이를 통해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 위기,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청년층의 보육, 문화, 여가 등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경주시는 외동읍 입실리 65번지 일원에 단독 주택형태의 공공임대주택 30호 미만과 커뮤니 티시설을 조성을 골자로 한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8일 외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사업설 명,홍보및 주민의견청취의 장을 마련했다.

공모 사업 추진을 위해 1회 추경예산으로 예 비계획수립용역비와 토지매입비를 미리 확보 했다. 이번 예비계획 수립으로 내년 1월까지 농 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을 할 예정이며, 공모 에 선정될 경우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 간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외동읍은 농공복합지역 으로서 농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다양한 산업 군과 청년층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나, 귀농· 귀촌청년층을 비롯한 청년층에 대한 정주 여건 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며, "경주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각 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안강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프로그램 진행

문화유산해설사 과정 교육

경주 안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지난 2일 부터 20일까지 6회기에 걸쳐 '경주愛청소년 문 화유산해설사'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두빛나래 청소년들에게 우리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고 우리 고장 의 자랑스러운 세계문화유산인 양동마을, 옥산 서원에 대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마 련됐다. 프로그램에 참석한 6명의 청소년들은세 계문화유산을 직접 소개하는 시간을 통해 숨겨진 끼와재능을 파악하는 자기성장 향상의 기회가됐 다. 또 우리 고장의 역사와 숨은 이야기 발굴을 통 해최상의 집중력과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향후 안강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는 안강지역 특성을 살린 실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문화유 산해설사를 매년 양성할 예정이다.

배경혜 아동청소년과장은 "우리 청소년들이 문화유산해설사라는 타이틀에 맞게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해 지역사회에 슬기로운 영향력을 제공하길 바란다"라며 "시에서도 다양한 프로 그램 제공을 통해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리더십 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과 응원을 아끼지 않겠 다"고말했다.

안강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는청소년의 건강한 방과 후 생활과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 활동, 교육, 복지 서비 스를지원하는 사업이다.

음식점 셀프바냉장고 무상 지원사업 재추진

올해 총 30개 식당 선발 예정

경주시가 일반·휴게음식점을 대상으로 '음식점 셀프바 냉장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이 사업은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기자재 구입에 따른 식당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추진된다.

지난해는 경북도 식품진흥기금 공모사업에 경주시가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올 해는 시 식품진흥기금으로 사업이 시행된다.



올해는총30개식당을선발할예정으로,선정 된식당은영업장환경에 맞는 크기의 반찬냉장 고1대를지원받게된다.자부담은없다. 총사업비는 3000만원이 배정됐다.

반찬 냉장고 지원을 원하는 식당은 다음 달 10 일까지 경주시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제출 방법은 경주시청 식품위생산업과를 방문하거나, 신청인 서명과 함께 신청서를 스캔해이메일(ijoajjoa@korea.kr)로 보내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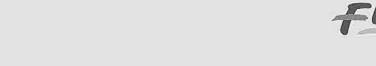
서류 평가와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중 최종 결 정되며, 지역 내 소규모 음식점 및 영업기간이 오래된 업소가 우선 선정된다.

건천읍 주민자치 운영 보고회

건천읍 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23일 2024년 상반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성과보고회를 건천읍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고 밝혔다. 이번 성과보고회에서는 연초에 계획 한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결과 평가와 이를 기반으로 한 하반기 프로그램 운영방안 개선,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불편 사항 및 건천읍 주 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향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주민자치위원회의 발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윤용찬 기자/사진=경주시 제공





지원대상 - 농지를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 / 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신)

대상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농지가격: 개별공시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

중립축산식품부 k 한국동어촌공사 두 등 동지은행·동지연급 "나부터 청렴하GO! 우리 함께 청렴하GO! 모두 청렴하GO!" ★은 한국동어촌 공사 성주지사

경북

대구광역일보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5

영양 석보면지역사회보장협, 구호품 전달

영양군 석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28일 늦더위를 대비해 취약계층 독거노인 8가구에 구호 물품 세트를 전달하였다.

석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속되는 폭

염으로 안전사고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독거노인 8가구를 대상으로 구호 물품 세트를 전달하였다. 구호 물품 세트는 선풍기와 이불 및식품등총5종의물품으로꾸렸다.

물품을 전달받은 최00(남, 65세) 은 "올해 여름은 유독 더위가 길어 힘 이 들었는데, 석보면지역사회보장협의 체에서 주신 물품 덕에 남은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라며 감사를 표 권윤동 기자 하였다.



포항사랑상품권 추석맞이 10% 특별할인판매

지류형 100억원 등 총 350억원 모바일 상품권 보유 한도 70만원 매월 상시 7% 할인 판매 진행

포항시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침체 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달 3일부터 포 항사랑상품권 350억 원을 10% 특별할인 판

이번 특별할인 행사는 카드형(포항사랑카 드)·모바일 상품권 250억 원, 지류형(종이) 상품

권 100억 원 등총 350억 원을 발행해 판매하며 예산소진시자동종료된다.

상품권 개인 할인 구매한도는 포항사랑카드 와 모바일 상품권, 지류형 상품권을 통합해 월 40만 원까지며, 지류형 상품권은 최대 20만 원 까지만구매할수있다.

포항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의 보유 한도 는 70만 원이며, 충전하기 전에 잔액을 모바일 앱(IM#)에서 미리 확인하면 편리하게 충전할 수있다.

포항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은 모바일 앱

(IM#)에서 3일 오전 00시 15분부터, 104개소 판 매대행점과 아이엠뱅크(구.대구은행) ATM기 (49개소), 셀프창구 등에서는 영업시간에 충전 할수있다.

지류형 상품권은 164개소 판매대행 금융기 관에서 구매할 수 있다.

판매대행 금융기관은 시 포항사랑상품권 홈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음식점, 서비스업 등다양한업종의 2만 1천여개의 가맹점에서 편 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10% 할인받아 충전한 포항사랑카드를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포항사랑상품권 가맹점에 서사용할경우5%를추가할인받을수있어최 대 15%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350억 원의 10% 특별할인 판매가 종료 되면 이어서 포항사랑카드와 모바일 상품권 50 억원을 발행해 9월 7% 할인판매를 진행할 계획 이다.

7% 할인은 지류형은 판매하지 않으며, 판매 일자는 포항시 모바일 앱(IM#)과 포항시 홈페이 지에 공지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사랑상품권이 추석

명절에 고물가·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 의 매출 증대에 보탬이 되고 시민들의 가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포항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다양한 포항사랑상 품권활성화정책을펼쳐나가겠다"고말했다.

포항시는 올해 설 명절 420억 원, 포항국제불 빛축제 90억 원, 포항사랑상품권 누적 발행액 2 조원돌파기념100억원등포항사랑상품권총 610억 원을 10% 특별할인 판매하고, 매월 상시 7% 할인 판매를 진행해 소상공인에게 힘을 보 태고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영덕,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행복기동대 교육

마을 이장. 1마을 1지킴이 활동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기대

영덕군은 김광열 영덕군수, 행복기동대 150여 명, 영덕복지재단 관계자, 9개 읍·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7일 영덕무형문화재전수 관에서 고독사 예방 게이트키퍼 행복기동대 역 량강화교육을 개최했다.

행복기동대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 독사를예방하고위기가구를조기 발굴 안내하 기위해 조직된 인적 안전망으로, 관내 204개 마

취약계층 103가구 개별 방문

울진군 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26일 관내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103가구

를 대상으로 '마음 담은 김치·반찬지원사업'을

울진읍 새마을부녀회에서 매월 반찬을 직

접 준비하고 협의체 소속 단체 회원들이 대상

가구에 개별 방문해 김치반찬을 전달하는 사

업으로 한울원자력본부에서 지원받아 시행

시행했다.

을의 이장들이 행복기동대를 결성해 1마을 1지 킴이로활동하게된다.

이날 교육은 △행복기동대 읍·면 대표 위촉장 수여 △행복기동대 퍼포먼스・단체 기념 촬영 △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의 이해 △행복기동대의 역할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고립 가구가 증가하면서 고 독사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 이라며, 고독사는 지역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에 행복기동대와 함께 민·관의 긴

이번 달에는 무더운 여름철에 간편하게 드실

수 있도록 짜장소스, 중면, 깻잎장아찌, 요거

트 등을 넉넉하게 준비해 각 가정에 직접 전

달하면서 건강히 잘 지내시는지 안부 확인을

김종경 민간위원장은 "아직 무더위가 지속되

는 가운데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입맛을 잃어서

건강을 해치실까 염려돼 마음 담은 김치·반찬지

원을 통해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바란다"라고

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 라고 밝혔다.

영덕군은 고독사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복기동대, 영덕복 지재단 등 민관 협력으로 심층 실태조시를 진행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안부확 인 △생활개선 지원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 그램 운영 △사후관리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를제공해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위험군을 집중 적으로보호하고관리할 방침이다. 조여은 기자

2024년 마음담은 기치반찬지원사업

말했다.

좋겠다"라고전했다.

글로컬대학30 사업 '한동대학교' 선정

5년간 국비 최대 1천억원 지원 지역 경제 활성화 인재 양성 기대

포항시는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모토로 교육부가 추진한 글로컬대학30 사업에 한동대 학교가최종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한동대는 향후 5년간 최 대 1천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으며, 지역과 대학 이동반성장할수있는다양한혁신사업을추 진하게 된다.

글로컬대학30은 정부가 지역대학의 경쟁력 을강화하고지역균형발전을도모하기위해추 진한 사업으로,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물고지 역과 산업의 파트너십을 토대로 세계적 경쟁력 을 갖춘 대학을 선정해 향후 5년간 국비 최대 1 천억원을집중지원한다.

대한민국 최고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는 한동대는 이번 본지정 평가에서 △미래대학 HI(전인지능) 교육모델 실현을 위한 'HI College' △글로벌 협력 성과를 확산하는 'HI Alliance' △HI 지산학 혁신의 플랫폼을 구축하는 'HI Accelerator' 등의 핵심 추진 과제로 높은 평가 를받았다.

한동대는 그동안 포항시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다양한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는데 앞장서 왔으며,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정착 을 위해 전인교육과 글로벌 리더십 교육을 강조 해왔다.

이번 글로컬대학 선정으로 한동대는 국제적 수준의 교육 및 연구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지 역사회와 긴밀히 연계된 혁신모델을 창출해 포

여객선 운임 할인기간은 추석 당일인 9월 17일을 전후해 9월 11~20일까지 진행되며,



항시와 함께 환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혁신 허브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 성화 및 인재 양성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

한동대의 이번 본지정 선정은 포항시를 비롯 한 경상북도, 울진·영덕·울릉군, 지역대학, 산업 체 등의 지속적인 지원과 협력이 결실을 맺은 결

지난해부터 한동대의 글로컬대학 지정을 위 해 포항시 관련 부서로 구성된 실행계획서 작성 TF팀'을 운영해 왔으며, 지자체, 기관, 지역대학, 산업체로 결성된 민·관·산·학 협력추진단을 구 성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포항시는 한동대와 함께 지역의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데 지속적으로 협 력하고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포스텍에 이어 올해 한동대까 지 지역에 소재한 두 곳의 4년제 대학이 모두 글로컬대학에 지정되면서, 지역이 갖춘 경쟁 력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포항이 주도하는 지 방시대의 선도모델을 제시하는 계기를 만들 었다.

영덕 블루로드 해변 걷기 행사 진행

울진읍 지역사회보장협, 반찬 전달로 이웃 사랑

하고 있다.

하였다.

'달빛고래트레킹'행사 사전 홍보 미션 완수자, 다양한 경품 지급

명품 해안 트레킹 코스로 알려진 영덕 블루 로드 일대에서 오는 31일 '가자 블루로드, GO 상대산&대진 해변' 걷기 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걷기 행사는 블루로드 지킴이 단체인 '가자! 블루로드'에서 주관하며, 영덕군 산림조 합, 영해면 새마을금고, 대진해수욕장 운영위 원회가 후원한다.

'가자! 블루로드'는 지역민 20여 명으로 구성 된 주민 참여 봉사단체로서 주민참여예산 사 업을 통해 영덕 블루로드 64km 전 구간을 모 니터링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환경개선에 힘쓰 고 있으며, 매월 블루로드 노르딕 워킹 체험 프 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영덕군이 이달 말 개최하는 '달빛고래트레 킹'행사의 사전 홍보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당 일 오후 4시 대진해수욕장을 시작해 예주목은 명품길, 상대산 관어대, 대진 해변 맨발 걷기로

이어지는 3.5km 약 2시간 코스로 진행된다. 행 사참여자 중선착순 150명에겐 신발주머니와 생수가 배부되며, 미션 완수자에겐 영덕군의 특산 가공품과 먹거리 쿠폰, 생필품 등 다양한 경품도 주어진다.

윤미경 공동위원장은" 늘 정성이 담긴 손길로

자원봉사 해주시는 협의체 소속 단체 회원 여러

분들의따뜻한사랑의마음이잘전달되었으면

이정수기자

이번 행사는 가족 단위 참가자의 경우 '가자! 블루로드' 사무국 담당자에게 연락해 사전 신 청하면 되며, 개인 신청자는 당일 집결지인 대 진해수욕장에서 현장 접수하면 된다.

'가자! 블루로드' 손기섭 대표는 "상대산 관어 대에서 내려다보는 천혜의 비경과 해변 맨발 건기로 건강도 챙기고, 다양한 미션을 수행하 는 재미와 함께 경품도 얻는 1석 3조의 행사가 될것"이라며참여를독려했다. 조여은기자

명절 귀성객 대상 여객선 운임할인

울릉군은 추석 명절을 맞이해 울릉도와 육지 를 잇는 여객선을 운영하는 다섯 선사의 협조를 받아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울릉군에 6촌이 내친인척을 둔자 및 등록기준지가 울릉군으로 돼 있는 자)을 대상으로 여객선 운임할인 행사 를진행한다.

할인신청 접수는 8월 26일부터 9월 11일까 지 울릉군청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된다.

할인율은 기본운임의 30%를 할인하며, 대저 페리의 엘도라도 익스프레스호는 입도 시 주민 등록초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면 50% 까지 할인을 지원한다.

울릉크루즈(주)의 뉴시다오펄호는 VIP실 및 2인실 제외 전 객실을 지원하며, ㈜JH페리의 썬 플라워 크루즈호의 경우 3등실에 한해 할인을 지원한다. 정윤환기자

경북

대구광역일보 2024년 8월 29일 목요일 6 내수면 어업자원 조성을 위해 동자개 치어 2만

4천마리를 방류했다.

상주시, 낙동강에 동자개 2만 마리 방류

이번에 방류한 동자개는 전장 4cm 이상

상주시는 27일 도남동 소재 낙동강 일대에 으로 일명 빠가사리라는 이름으로 유명하 며, 최근 유해조수로 지정돼 문제가 되는 민 물가마우지에 대한 저항성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내수면 자연생태 환경 복원과 어업

자원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주시 축산과 관계자는 "내수면 생태계 보 존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 을 가지고 토종어류 방류사업을 추진하겠다" 고말했다.



"안동시 민선 8기 후반기 공약이행 총력"

7월 말 기준 공약이행률 75% 매니페스토 이행검증위 개최 내달 주민배심원 회의 예정

안동시가 민선 8기 반환점을 지나며 109개 공 약이행에 한층 박차를 가한다. 8월에는 매니페 스토 이행검증위원회, 9월에는 주민배심원 회 의를 열고 시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며 공약사 업의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살핀다.

이어 공약사업 추진 보고회를 마련해 부서별 추진현황을총점검하고임기내이행방안을논 의할 계획이다. 시는 민선 8기 후반기를 공약사 업의수확기로보고공약이행률을최대한끌어 올릴 계획이다. 안동시 7월 말 기준 공약이행률 은 75%다. 완료 또는 이행 후 계속 추진 중인 사 업이64건으로발빠른공약추진을이어가고있 다.시는속도감있는사업추진으로올해5월한 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민선 8기 기 초자치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

또한, 7월에 열린'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 수사례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 상하며 공약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28일 시청 청백실에서 매니페스토이행 검증위원회를 열고 민선 8기 2년간의 공약 이 행상황을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약 관련 전문가, 학자, 사회 단체 대표, 주민 위원 등 매니페스토 이행검증 위원회 위원 9명이 참석해 검증에 나섰다.

지난 2년간 추진한 109개 공약사업에 대해 계획의 적정성, 추진 과정의 효율성, 계획 대비

성과 달성률 등의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는 추후 안동시 누리집에 공개된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무엇보다 시민과의 약속 을철저히 지켜 시민이 원하는 시정을 발빠르게 구현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의 한결같은 신뢰 와 성원을 새로운 도약의 지렛대로 삼아, 민선 8 기 3년 차에도 도전과 혁신을 이어가겠다"라고 전했다. 송명주기자

봉화 법전척곡교회서 나라사랑 음악회

매년 경술국치일 8월 29일 개최



일제강점기 민족독립을 위한 상징적 장소인 봉화척곡교회에서 8월 29일 '제7회 나라사랑 음악회'가개최된다.

봉화척곡교회(법전면 척곡리 소재)는 1909년 에 명동서숙과 예배당을 건축해 민족교육에 힘 썼던 역사적인 장소이다.

나라사랑 음악회는 1910년 일제에 통치권을 빼앗기고 강제로 한일병합조약을 체결한 경술 국치일을 되새기고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헌 신한 애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음악회로, 매년 경술국치일인 8월 29일에 개최 한다.

이번 행사는 총 4부로 나눠서 진행되며, 제 1부는 식전행사로 사물놀이와 관악합주가 있고 제2부 기념식에서는 애국가 제창, 순국 선열에 대한 묵념 등 애국선열의 정신을 기 린다.

제3부음악회는합창,중창,독창,기악합주,독 주등다양한 공연이 이어지고 제4부 다짐의 시 간에 시낭송 및 박영순 목사의 폐회인사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된다.

나라사랑 음악회는 단순한 음악행사를 넘어 우리가 공유한 역사를 기념하고 지속적인 발전 과 평화의 미래를 기대하는 화합의 장이 될 것 으로기대된다.

박영순 목사는 "조국의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운 애국선열들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후 손들이 이를 잊지 않고 나라에 대한 사랑을 일 깨우는 자리"라며 "가족, 친구, 이웃 등 군민 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상기기자



예천, 민원실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련

의성, 의성마늘목장 사료용 한지형 마늘 수매

2차 수매 65농가 참여 올해 총 50톤 마늘 수매



의성군은 26일 종합운동장에서 의성마늘 목장 사료용 한지형 마늘 2차 수매를 실시하 였다.

지난 9일 실시한 1차 수매에는 289농가가 참

여해 한지형 마늘 36톤을 수매하였으며, 이번 2차 수매에는 65농가가 참여해 한지형 마늘 14톤을 수매해 올해 총 50톤의 마늘을 수매하 였다.

군은 매년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수매한 마늘은 가공을 통해 의성마늘목장 참여 축산농가에 공급돼 마늘소, 마늘포 크, 마늘란 등 고품질 브랜드 축산물을 생 산하는데 이용되며, 농가에서는 비 상품성 하품마늘 판매를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하 고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수매를 통해 약 1억 1천만원 어치의 하품마늘을 수매하였으며, 마늘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재성기자

마을 이장, 1마을 1지킴이 활동 고독사 위험군 조기 발굴 기대

예천군은 27일 오후 4시 군청 종합민원실에서 예천경찰서와 합동으로 '특이민원 대비 모의훈 련'을실시했다.

훈련은 특이민원 발생 대비 상황을 가정하고 상황별 대응 요령에 따라 △민원인 중재 시도 △ 웨어러블카메라 녹화 △비상벨 호출 및 청원경 찰 민원인 제지 △피해 공무원과 방문 민원인 대

피 △가해 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순으로 진 행됐다. 군은 전국적으로 특이민원이 해마다 증 가하고 공무원 대상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담당 직원의 안전한 근무환 경 조성과 직원들의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군 청뿐 아니라 12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매 년 2회실시하고있다.

안전하고 편안한 민원 처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군청 민원실에 청원경찰을 배치했으며, 목 걸이 형태 카메라인 웨어러블 캠을 도입하고 비

상벨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임미란 종합민원과 장은 "민원실은 누구나 찾고 머무는 공간 인 만큼 공무원과 민원인 모두 안전한 환 경에서 마음 편히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 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예천군을 찾는 민원인들이 쾌적한 환경 에서 민원 업무를 보고 만족과 감동의 서 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명주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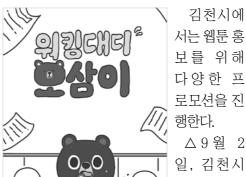
김천시 SNS 캐릭터 '김오삼' 카카오페이지 출시

키몽작가와 비브로스팀 협업

김천시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캐릭터인 '김 오삼'을 소재로 한 웹툰 워킹대디 오삼이가 9월 2일 카카오페이지에 출시되다.

김천시가'키몽의 호구로운 생활'로 유명한 키 몽(김홍렬) 작가와 비브로스팀과 협업해 제작 한웹툰워킹대디 오삼이는,김천홍보맨이 된 오 삼이의 육아분투기를 다루며 일과 육아 사이에 서 어려움을 겪는 워킹맘&대디의 공감을 유도 한다.

또한,김천시출산관련정책과 2024 김천포도 축제를 녹여내며 김천시 브랜드를 널리 알릴 예 정이다.



보를 위해 다양한 프 로모션을 진 **///** 행한다. △ 9 월 2

김천시에

일, 김천시 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25,000명에

게 「김오삼이 육아 일상」 이모티콘 지급 🛆 9월 2일 ~ 9월 15일, 웹툰 감상 후 댓글 남길 경 우 카카오페이지 1,000캐시 증정(추첨 2,000

명) △9월 2일 ~ 9월 18일, 웹툰 홍보 영상에 '좋아요' 누르고 김천시 공식 유튜브 구독 시 워킹대디 오삼이 인형 증정(추첨 50명) 등 누 구나 프로모션에 참여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온라인 프로모션에 더해, 김천시는 9월 6일부 터 8일까지 2024 김천포도축제에서 홍보부스 를운영해 웹툰홍보에 박차를 가한다.

웹툰을 감상할 수 있는 휴식·체험 공간을 조성해 방문객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며, 웹 툰 책자와 인형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를 진 행해 웹툰과 캐릭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워킹대디 오삼이 웹툰을 통 해 전국에 있는 웹툰 독자와 캐릭터 애호가들에 게 캐릭터 김오삼이 널리 알려지면 좋겠다.

또한 김천 축제와 정책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 시면좋을 것같다.'고 밝혔다. 이경호기자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 정철환 관장은 개소식 에 참석한 내빈과 주민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 며 "지역 주민 누구나 교류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시설 운 영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추진에 직원분들이 성실히 임해주셔서 감사하 다"라며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으로,지역 주민 을 위한 공간인 꿀단지가 화합의 장소가 돼 일 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라고밝혔다. 송명주기자

영주, 몽골 하르호린군·샤마르군과 계절근로 업무협약

내달 2일부터 근로자 신청 접수 내년 상반기 근로자 활동 예정

영주시는 28일 몽골 하르호린군을 방문해 계 절근로신규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르호린군은 몽골인의 시원지인 오르혼계 곡에 위치한 몽골제국의 옛 도읍터이자 에르덴 조사원 등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보유한 유서 깊은 도시이다.

영주에 소재한 특성화고등학교(한국국제조 리고등학교, 한국철도고등학교)에 유학생을 파 견하고 있어 영주시와 인연이 깊다. 이번 협약을 통해 유학생의 부모가 계절근로자로 초청된다 면 가족이 함께 지역의 우수인력으로 활동하며 정주할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 3월부터 하르호린 군 근로자들이 영주시의 영농파트너로 활동 하게 된다. 입국 인원은 농가 수요조사에 따 라 결정된다. 시는 근무태도 농가 선호 등을 반영해 점진적으로 도입 인원을 확대할 계 획이다.

시 실무단은 오는 30일에는 몽골 샤마르군 과 계절근로 신규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 정이다. 샤마르군은 수도 울란바토르에서 약 364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영농활성화 지역 이다.

오는 9월 2일부터는 한 달여간 2025년 농업분 야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신청서를 접 수한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안정적 농촌인력 공급뿐 만 아니라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도 외국인 인 력 유치가 시급하다"며, "외국인 계절근로제도 를활용한정주형 외국인 우수인력 육성으로지 방소멸 문제해결에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겠 전상기기자 다"고밝혔다.

안동시 옥동 주민공유공간 '꿀단지'개소

바리스타 전문 교육·현장 경험

안동시와 안동시종합사회복지관은 27일 옥 동주공2차이파트에서 주민공유공간 '꿀다지' 개소식을 열었다.

아파트 상가 101호에 마련된 꿀단지는 안동시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일환으로 지역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모여 대화하고 교류할 수 있는 휴게공간이자 경제적 자립을 위한 바리스 타전문기술교육및현장경험을제공하는공간 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복지에 활 용된다.

지난4월,1기주민바리스타로모집된지역주 민 4명이 함께 운영하며, 추후 추가모집을 통해 더욱 활성화할 예정으로, 로컬푸드(마, 생강 등) 를 활용한 메뉴 개발 및 지역 취약계층 대상 식 음료나눔활동등지역사회기여에도힘쓸예정

'공짜 점심'의 유혹

임정덕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기보다 자식이 더 잘되기를 염원하고 기도하며 어떤 노력 이나 희생도 마다않는다.

인류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온 원동력 중 의 하나가 다음 세대를 위한 배려와 희생 이다. 가장 단적인 예가 자식 교육이다.

한국이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고도성장 을 단기간에 이룩해 선진국 반열에 올라 선 것도 교육열에 힘입은 바 크다.

우리 부모들은 거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논밭과 소까지 팔아 가며 자식들을 위해 과감한 희생을 감내했다. 비단 교육이나 후세 양육뿐만이 아니다.

경제도 원리는 똑같다. 나라의 장래와 후대를 위해 현재의 어려움을 참거나 희생 을 감수하는 노력이 바로 저축이요 자본 축적이다. 개인, 기업, 국가 등 경제 주체가 축적해 놓은 자본이 없거나 모자라면 어 떻게든 돈을 융통해 하고자 하는 사업(자 녀 교육도 마찬가지)을 때 놓치지 않고 실 현하는 지혜와 용기, 안목과 통찰력, 기획 력과 추진력이 요긴하다.

그렇게 해서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들 이 한국의 지난 세대 주역들이고, 나아가 세계 최빈국이었던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지도자와 기업가 및 정책 당국이었다.

인간은 누군가가 밥을 사 주면 좋아하기 마련이다. 그것도 한두 끼가 아니라 매번 공짜로 주고, 나아가 모든 사람이 똑같은 혜택을 누리게 한다면 가히 천국이 따로 없다고 할 만하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 세상 어디에도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는 지금도 여전히 유효 하고 반론의 여지가 없는 법칙이다.

내가 지금 호주머니 돈을 내지 않고 점심 을 먹더라도 누군가가 그 값을 대신 치르 거나 나중에 본인 아니면 후손이 그 비용 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냉혹한 현실이 도 사리고 있다.

거대 야당이 이른바 기본소득 정책의 일 환으로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을 지급 하는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국회를 통과시켰다.

한 번 시행에 12조~13조 원의 막대한 비 용이 소요되는 포풀리즘의 전형이다. 우 리 사회에 어려운 사람들이 아직도 많으 므로 이런 공짜 점심을 준다고 하면 좋아 할 유권자도 꽤 많을 것이다. 이 법안이 그 점을 노린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은 누구 나 다 안다. 경제학 이론을 굳이 들이댈 것 도 없다.

이런 정책이 세계 최초이거나 새삼스러 운 것도 아니므로 그동안 시행된 사례를 분석하면 그 결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여기서는 세 나라만 간단히 살펴본다.

세계 최대 산유국의 하나인 베네수엘라 는 전도유망한 나라였다.

그러나 1980년대에 닥친 제2차 석유 위 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아 자국의 정유 기술 향상과 장래를 위한 산업 구조조정 을 추진할 기회를 놓쳤다. 대통령으로 내 리 4번 당선돼 14년간 장기 집권하다 암으 로 사망한 우고 차베스는 외국 자본 소유 의 석유기업 국유화와 더불어 모든 국민에 게 마구 퍼주는 정책을 서슴지 않았다.

그의 뒤를 이은 지도자들마저 같은 포 퓰리즘을 강행하는 바람에 베네수엘라는 오랫동안 천문학적 인플레이션에 시달리 다 남미에서 가장 비참한 나라로 전락했 고, 많은 국민이 살기 위해 조국을 등져 야 했다.

그정반대 사례가 북유럽의 부국 노르웨 이다. 이 나라는 북해유전 발견으로 일약 산유국이 되면서 막대한 부가 계속 창출 되는 엄청난 행운이 찾아 왔다.

이때 정부가 제안하고 국민이 지지한 정 책은 이 '뜻밖의 부'를 국민 모두에게 골고 루 나눠 주거나 당장 써 버리는 게 아니라 국부펀드를 만들어 장래에도 부를 지속적 으로 창출하게 만들고 후손들이 그 혜택 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

그 정책은 지금도 그대로 실천되고 있다. 다른 유럽 국가의 예로 스위스를 들 수 있다. 역시 부국인 이 나라는 사회복지제 도의 일환으로 모든 성인에게 매월 약 300 만 원(미성년자는 80만 원)을 기본소득 으로 지급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되풀이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대유행으로 스 위스도 예외 없이 크고 작은 경제적 고통 을 감수하며 견뎌야 했을 때에도 그랬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기본소득 지급안 은 국민투표에서 70% 이상의 반대로 번번 이 무산됐다. 포퓰리즘을 경계하는 스 위스 국민의 현명함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당한 대가 없이 받아먹는 행위가 반복 되면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음을 기대하기 마련이고, 공짜 공급이 계속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이 쌓일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불편한 심정이나 장래를 고려 하는 염려가 없지 않겠지만 계속 반복되 다 보면 당연한 권리로 여길 것이고, 공짜 가 중단되거나 축소되면 참지 못하고 불 만을 터뜨리고 말 것이다.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복지형 국가라면 정부든, 사회든, 개인이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적극 돌보기를 주저해선 안 된다. 그러나 정치권이 앞장 서서 공짜 점심을 바라는 풍조를 조장한 다면, 국가와 사회는 몰락의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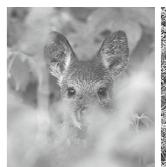
정권을 잡으려고 표만 되면 어떤 짓도 불 사하는 불순한 정치 세력은 나라의 앞날 은 아랑곳없고 당장의 표심만 쫓는다.

이렇게 선공후사(先公後私)가 아닌 선 사후공을 택하면 나라꼴이 어찌 되겠 는가!

성명서

대구시는 팔현습지를 국가습지로 지정하는 그 길에 적극 나서라!

금호강 난개발 저지 대구경북공동대책위원회





산과 강의 생태계가 자연스레 연결되고 금호강의 원 시 자연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팔현습지는 19종 에 이르는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숨은 서식처'(Cryptic habitat)이자, 각종 야생동물의 집으로 반드시 보전되어 야할 핵심 생태 구역이다.

특히 강촌햇살교 건너 좌우 2km에 이르는 구간은 산과 강의 생태계가 그야말로 자연스레 연결된 구간으로 금호 강 대구 구간 42km에서 가장 핵심 생태구역으로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그런데 19종의 법정보호종 야생동물의 집 금호강 팔현 습지에 환경부가 탐방 보도교를 건설하려 해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환경부발 이같은 반환경 '삽질 공사'는 절대 안될 일이 고, 하루속히 이곳을 국가습지로 지정해 누대로 보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다. 왜냐하면 금호강 팔현습지는 대 구의 상징이자 대구의 큰 자랑거리이기 때문이다.

이곳을 다녀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대구에 아직 이런 곳이 남아 있다니, 그것도 대구 도심 가까이에 이런 곳이 남아 있다는 것은 기적으로 반드시 보전해야 한다" 할정도로 그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이다.

특히나 팔현습지 하천숲과 왕버들 군락지는 '원시 자연 성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곳'으로 멸종위기종들의 '숨은 서식처'로서 기능을 하면서 수많은 생명들을 기르고 있 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곳이다.

이런 곳에 걸어서 5분, 자전거로 고작 1분의 시간을 단 축하고자 170억원의 국민혈세를 투입해 각종 멸종위기종 의 '숨은 서식처'에 해당하는 이곳으로 굳이 직선의 탐방 로를 건설해 팔현습지 핵심 생태구역을 교란시킬 이유가 결코 없다는 것이다.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되는 이같은 일을 환경부가 벌인 다는 것이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는 일로서 환경부발 삽질 을 반드시 막아내고 팔현습지를 국가습지로 만드는 노력 이 필요한 이유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주무 행정기관인 대구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한다. 대구시가 환경부에 국가습지로 등재할 것 을 적극 제안하고, 그에 상응하는 많은 노력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제 250만이 사는 거대도시 대구시도 다른 타 도시와 같이 국가가 보호하는 국가습지가 한둘은 있어야 할 것이고, 그 첫 국가습지가 팔현습지가 되기를 많은 대 구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다. 따라서 대구시가 적극 나서고 대구시민들이 적극 호응해서 민관이 함께 나서서 금호강 팔혀습지를 국가습지로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실지로 8월말 현재까지 1천 명이 넘는 대구시민을 포함 한 2천 명에 이르는 전국의 시민들이 팔현습지를 국가습 지로 등재하길 촉구하는 서명에 사인했다.

그러니 대구시는 이들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절대 외 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달 라 지 면 신 문 내 용 도 달 라 져 야 합 니 다 자 의 슴 까 지 생 각 합 니 다



대구광역일보

등록번호(일간) dgynews@daum.net

대표 (053) 253-0000 FAX (053) 253-0041 대구시 중구 태평로286(2층)

말 행 인 김 영 숙 편집인 김성용 부사장 조여은 편집국장 김 현 석

지역번호 053

대 표 257-0000 부사장 254-0400 편집국장 257-0200 경영지원국 267-5000 광고국 267-0800 사회부 253-0060 정경부 253-0061 문체부 253-0065 지방부 253-0064 편집부 253-0063 구독료 월정 10,0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1부 500원

연일 폭염에 주거용 비닐하우스가 위험하다



■ 나의제언

지난 26일 성주읍 소재 비닐하우스와 농막에서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가 발생하여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다.

성주소방서 예방총괄담당

재는 최근 5년간 63건의 화재가 발생하여

성주는 전국 참외생산 안 주 보 량의 70%를 차지하는지 역으로 2023년 기준 성주군 비닐하우스 화

전체 화재의 11%를 차지하고 재산 피해는 223,187천원이 발생하였다.

화재 원인으로는 부주의가 21건 34%로 가 장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비닐하우스는 여러 동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가연성 소재로 만들어져 화재에 취약 한 구조이며조그마한 불씨라도 큰불로 이어 질수있다.특히, 농막등으로 사용되는 주거 용비닐하우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사망률

(7%)로전체 화재 사망률 대비 8.8배 높은 결 과를 보여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닐하우스의 화재 위험성을 보면 열을 차 단하기 위해 장시간 난방기구를 가동하고, 외부 공기 차단으로 내부 습도가 올라가 누 전발생위험이 크다.

또한 농막 등 주거용으로 사용 시 냉난방 기 가동 및 문어발 멀티탭 사용으로 화재 위 험성을 높이고 있다.



